

2012

DIPLOMATIC

WHITE

PAPER





제 6 장

영사 서비스 확충

제1절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246
제2절 해외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259
제3절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265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 권익 증진

1.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내실화

연간 출국자가 1,300만명에 달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재외국민보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재구축, △Facebook·Twitter 등 SNS를 활용한 정보 전달, △해외안전여행서포터즈 블로그 운영 등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하게 진행하였고, 대형사건사고가 역시 빈번히 발생했던바 외교통상부와 관계기관(국토해양부, 청와대, 총리실 등)간 합동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1)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활동

(1) 해외안전여행 홍보

사건·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해외여행객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한 해외여행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 우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해외안전여행 Facebook·Twitter 계정을 개설하여 실시간 대국민소통을 추진하였다. YTN ‘해외안전

여행정보' 프로그램과 KBS월드라디오(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였고,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여행정보단계를 알기 쉽게 홍보하였다. 또한 여권발급지자체·여행사·항공사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보딩패스에 홍보문구 삽입, 기내지 및 기내영상 광고 등 해외여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출국단계별 홍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왔다.

(2)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2010년 7월 발족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11년에는 서포터즈 제2기(4월), 제3기(9월)를 각 60명씩 선발하였다. 단체보다는 개별여행을 많이 하고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층에게 특화된 안전여행정보를 집중 전달할 필요성을 감안, 대학생들 주 대상으로 재외국민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팀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정보를 전파토록 하였다.

이들은 △해외안전여행 블로그 운영, △CF를 패러디한 안전여행 UCC 제작, △만화로 안전여행 알리기, △길거리 홍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영사콜센터 견학, 팀장 워크숍 등 해외안전여행에 대해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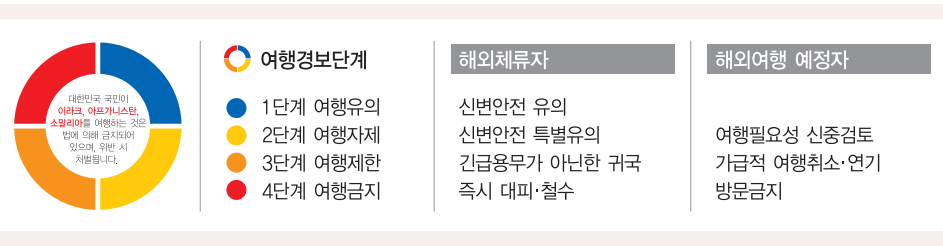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3) 여행경보제도

외교통상부는 해외 각 국(지역)의 위험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권고하는 여행경보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여행정보는 해외여행객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와 위험수준을 전달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각 지역의 여행정보 단계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하며 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정 때마다 즉각 유관단체(여행업계·선교단체·NGO 등)와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여행경보제도

(4) 여행금지제도

2007년 개정된 여권법에 의거,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외교통상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012년 2월 20일 현재 소말리아·시리아·아프간·이라크·예멘 5개국 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아프간·소말리아에 대해서는 1년간(2011.8.7-2012.8.6) 여행금지를 재연장하였고, 이라크·시리아에 대해서는 여행금지기간을 6개월씩 연장(이라크 2012.2.7-8.6, 시리아 2012.3.1-8.31)하였으며, 예멘에 대해서는 3개월(2011.12.28-2012.3.27) 연장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15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던 리비아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5일부로 여행금지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여행금지국 무단입국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2) 대응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활동

(1) 신속대응팀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부 및 재외공관의 전문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삼호주얼리호 피랍(1.18), 뉴질랜드 지진(2.23), 리비아 내전사태(2.23), 일본 동북부 지

진·해일 사태(3.11)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파견했으며, 5월 2~5일 중동에서 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영사콜센터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여권, 해외이주 등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24만여 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한국능률협회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중앙정부 콜센터 가운데 1위로 선정되어 ‘한국의 우수 콜센터’ 인증을 받았다.

(3) 영사협력원

외교통상부는 2007년 3월부터 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여,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하여 초동대응 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여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1월~3월), 주우한총영사관(7월), 주시드니총영사관 및 주필리핀대사관(9월), 주남아공대사관(10월), 주선양 및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11월)에서 신규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였다. 영사협력원은 2012년 1월 현재 전 세계 64개국에서 총 108명이 활동하고 있다.

(4)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본부의 재외국민보호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영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중동(2월), △아프리카(3월), △북미(4월), △동남아(6월), △중남미(6월), △중국·몽골(7월), △일본(8월), △서남아·태평양(11월) 지역에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하였다.

(5) 신속해외송금지원 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구자가 영사콜센터와 재외공관 계좌를 이용하여 경비를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3천 미불 한도)하는 제도이다. 시행 이래 총 1,835건 총 23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에는 526건 총 7억3천여만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거래은행도 기존 농협에 이어 수협과도 업무제휴약정서를 체결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6) 긴급구난활동비

긴급구난활동비는 해외에서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공관의 사고수습과 긴급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1년 리비아 사태 시 이집트전세항공기 지원(34명), 특수신분자 및 행려병자 귀국 지원(13명), 무연고자 장례지원(7명), 피랍자 및 수감자 치료 지원(2명), 수감자 물품지원(15건, 397명) 등에 1억 7천여 만원을 지원하였다.

2. 2011년 주요 사건·사고 대응

1) 개관

2011년 한 해 동안 7,808명(범죄피해 4,458명/범죄가해 1,248명/강제추방 377명/기타 1,725명)의 재외국민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 이는 2010년 7,717명(범죄피해 3,716명/범죄가해 1,486명/강제추방 518명/기타 1,997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1년 출국자수(1,301만명)가 2010년(1,280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사건·사고는 가해와 피해 모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우리 국민 피살자 28명 중 13명(46%)이 아태지역에서 살해되었다. 또한, 납치·감금된 121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3명(85%)이 아태지역에서 피해를 당했다.

2) 사건·사고 대응 주요사례

(1) 소말리아 해적 피랍(삼호주얼리호)

2011년 1월 15일 우리국민 8명이 승선한 케미칼 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아라비아 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었다. 피랍선박에는 우리국민 8명 외에 인도네시아인 2

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 승선하고 있었다. 삼호주얼리호는 1월 21일 청해부대의 구출 작전으로 피랍선원 전원이 구출되었으며, 외교통상부는 1월 19일 「신속대응팀」을 오만 현지에 파견하여 청해부대의 구출 작전을 지원하고 부상자 후송·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피랍 선원들의 안전한 귀국 및 생포된 해적 국내 압송 등을 지원하였다.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은 “해적단체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재확인 된 것이며, 우리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선원 구출을 위해 처음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출작전 성공 직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2) 리비아 사태

2011년 2월 15일, 리비아 제2도시 벵가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카다피 정권이 유혈진압을 시도함에 따라 연일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 우리기업 건설현장에 현지 주민이 난입·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사태 초기에는 시위가 여타지역으로 번질 가능성 등으로 일부지역(벵가지, 알베이다, 테르나, 토부룩 등 동부지역)을 여행경보단계 3단계로 지정하고 여타지역을 2단계로 지정하였다.(2.20) 이후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외교부는 문하영 재외동포대사(정세급변지역 비상대책반장)를 본부장으로 하는 「리비아사태비상대책본부」와 조대식 주리비아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현지대책본부를 각각 설치·가동하였고(2.21), 신속대응팀 2개조를 각각 이집트(2.23) 및 튀니지(2.24)로 급파하여 우리국민의 철수를 지원하였다.

약 2주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전세계·선박·육로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현지 체류 우리국민 약 1,400여명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 및 모든 관계부처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 지진·해일 사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진도 8.9/9.0의 지진이 일어나 정전·화재·

해일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외교통상부는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협의하였으며, 일본 정부 및 현지 교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트위터·페이스북에 대응상황 수시 공지, 여행경보단계 지정 및 후쿠시마 원전 인근 거주 우리국민 대피권고 등 조치를 취했고, 익일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구체 활동내역으로는 피해교민 구조(23건, 38명), 우리국민 안전지역 이동조치(31회, 642명), 사망자 확인 및 지원(3명), 구호품 지원(90건) 등이며, 국내에서는 영사콜센터에 2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폭주하는 민원에 24시간 대응하였다. 주센다이총영사관에 접수된 1,043건의 신원확인 민원 중 1,039건이 확인되었고, 본부와 재외공관, 그리고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 간의 노력으로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었는바, 이를 통해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3. 재외동포 권익 증진

1) 재외선거제도 도입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들은 선거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의 경우에도 귀국하지 않는 한 선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2008년말까지 개정토록 결정하였다. 2009년 1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재외국민 선거권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이후, 정부는 처음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홍보와 공관별 실태조사를 위하여 재외선거홍보 및 실태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2010년과 2011년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공관 및 국내 관계기관의 전반적인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고, 2011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5명을 재외유권자수 5천명이상 공관 및 거점공관에 파견하여 재외선거관으로 근무토록 조치하였다.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 일정에 맞춰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58개 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10월 14일 부터 설치되어 활동중이고, 2011년 11월 13일부터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되어 2012년 2월 11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외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012년 실시되는 양대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확고히 해 나가는 한편, 주재국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 동포사회의 분열 가능성 등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되었다. 2004년 11월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위원회 연 1회 및 실무위원회 연 2회 이상 정례 개최를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정책위원회와 20차례의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13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제20차 실무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재외선거의 차질없는 시행 및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정책 관련 양적·질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통합적 재외동포정책 추진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간 협의 및 업무 조정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재외동포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은 그간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재외동포들을 위한 기념일 제정 건의를 반영, 2007년 5월 법정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7백만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연대를 상징하는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부터 공식 기

재외동포 및 단체현황



념식, 재외동포정책 세미나, 어울림한마당 행사, 사진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들에게는 모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나된 세계한인, 희망찬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2011년 제5회 세계한인의 날에는 재외동포 및 국내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하여 공식 기념식을 비롯한 인사동 문화체험, 재외동포영화 특별상영전, 코리아페스티벌 등 다채롭고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와 일반 국민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간의 호혜적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세계한인의 날을 재외동포와 모국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4) 고려인 재정착 지원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전역에 53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 내전 및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성향 대두, 경제악화 등으로 약 5만여 명이 원국적지를 이탈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여타 CIS지역으로 이동,



제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재외동포유공자 훈·포상(2011.10.5)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CIS지역 동포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어교육기회 확대, 동포학생 유학지원 및 초청연수확대, 민족문화 정체성 유지, 현지 재외동포의 국내취업기회확대, 현지 정착 활동 지원을 5대 역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관련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1년까지 900여명이 체류자격 합법화를 달성하였으며, 여타 CIS 지역에서도 관련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또한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 차원에서 농업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바, 그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지에 농업 교육장 건립을 지원하고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고려인동포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확보된 이후, 사업결과 검토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5)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중국·CIS지역 동포들의 모국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관리제(2002.12) 및 특례고용허가제(2004.8)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어서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도 모국을 방문·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취업제를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방문취업제는 동포들에게 최장 5년간 한국체류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동포 지원정책으로서, 동포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간 후 모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재외동포사회 지원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1)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지원 사업

- 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 모국어 교육사업, 모국문화 보급사업, 차세대 육성사업
-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
 - 지위 향상 및 숙원사업 지원, 한인회 역량결집사업, 한상활성화 사업
- 동포사회 조사·협력 강화
 - 조사연구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홍보(정보화) 사업

(2) 재외동포사회 지원 주요성과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세계 한인회장을 초청, 국내·외 동포 간 및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인회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무대이다.

2011년으로 12주년을 맞은 세계한인회장대회는 6월 14-17일간 서울 웨라톤 위커힐

호텔 및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400명의 한인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세계국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세계한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방안,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및 정체성 확립, 차세대동포 교육 강화, 재외선거 등 관심사가 논의되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대통령 주최 다과회를 비롯해 G20서울정상회의 개최 의의, 글로벌 코리안네트워크(GKN)구축사업 설명회 및 정당별 재외동포정책 설명 등 한인회장 주요 관심사에 관한 프로그램, 지역별 현안토론 및 전체회의 등 쌍방향 소통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제10차 세계한상(韓商)대회 개최

제10차 세계한상대회는 2011년 11월 총 40개국 4,010명(국내 3,008명, 해외 1,002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기간중 운영된 기업전시회에는 총 48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598개 부스가 설치되어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리딩CEO포럼,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멘토링세션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영비즈니스리더 포럼에는 역대 가장 많은 차세대 한상이 참가하여 한상 네트워크의 확대를 모색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상담 4,657건, 26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총 10건의 MOU 체결 및 자매결연을 통해 국내외 경제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유관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였다.

2011 Korean Festival

코리안페스티벌은 2007년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음악과 예술을 통한 내외동포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9년 서울예술제를 모태로 하여 다양한 장르의 동포예술인을 초청, 국내관객들에게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그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 코리안페스티벌은 KBS공개홀에서 코리안페스티벌 오케스트라(지휘 금난새 씨와 러시아,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출신 재외동포단원 9명 등 포함)의 공연과, 헬렌권

(독일), 주미강(독일), 양방언(일본), 박성규(이탈리아) 등 유명 재외동포 음악인들과 세시봉(조영남, 김세환, 윤형주) 등 국내 정상급 음악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무대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관련 TV 특집방송(KBS1 TV, KBS월드, 68개국 해외방송망)을 편성하여 해외거주 동포들에게도 감동을 전하며 뜻깊은 문화예술 축제의 의미를 한층 심화하였다.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2년까지 전 세계 한민족을 온라인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를 포괄하는 사이버 한민족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출범하였다.

2010년에 온라인 통합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인물·단체 DB구축 등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의 기본 인프라(1단계)를 구축한데 이어, 2011년에는 1단계 사업의 정보화 시스템 및 서비스를 확대(2단계) 하였다.

제2절

해외진출 우리 국민 편의 증진

1. 외국과 사증면제 및 간소화 확대 추진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확대 추진

해외여행객 1,300만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활발한 해외진출 및 편리한 여행을 위하여 외교통상부는 세계 각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완료(93개국)하였다. 2011년 우리나라와 미얀마(4.1), 키르기스공화국(5.19)간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한·아르메니아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우루과이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외교관·관용은 '93년 체결), 한·몰도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한·가봉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등이 국내절차를 거쳐 2012년중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바레인, 앙골라, 말리, 레바논 등 국가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사증간소화 확대 추진

외교통상부는 사증면제협정 이외에도 사증간소화, 복수사증발급 및 사증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활발한 해외진출 및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1년에 한·인도 양국간 상대국 내 상사 주재원들의 비자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들을 대폭 개선하는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하였다.

2. 상호 교환 방문 프로그램 확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외교부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체결국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며, 기존 협정체결 12개국과는 참가배정인원(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12월에 한·체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2012년 상반기 발효 예정)하였고, 현재 한·이탈리아, 한·영국, 한·오스트리아, 한·헝가리, 한·네덜란드 등 주요 국들과도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협정체결국인 일본과는 현재 연간 7,200명인 쿼터를 2012년부터 10,000명으로 확대에 합의(2011.9.1)하였다.

》》 협정체결 현황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체결일시	95.3	96.1	99.4	99.4	08.10	09.4	09.12	10.9	10.10	10.11	10.11	11.12
체류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연간쿼터	무제한	4,020	1,800	7,200	2,000	무제한	400	무제한	무제한	200	400	300

*2012년중 협정 체결 추진중인 국가 :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등

우리 젊은이들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보호, 신뢰할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회, 홍보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대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20회 실시했으며,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체험사례를 공유하여 참가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워킹홀리데이 활동사진/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전파하였다.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www.whic.kr)’를 운영하고, 한국 방문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인포센터 영문 홈페이지(www.whic.kr/en)를 운영중이다(2012년에 일어·불어도 구축 예정).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참가자는 2010년 700명에서 2011년에는 2,403명으로 약 240% 증가하였다.

음원의 찾아서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음원은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젊은 양의 특권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홍보 리플렛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외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홍보 리플렛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Working Holiday



찾아가는 설명회



3.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품질 향상

1) 순회영사활동 강화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영사가 직접 출장을 가서 현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등록, 여권 발급 신청 접수, 각종 공증 업무 등의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순회영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외교통상부는 2005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한후 지속적으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체제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재외공관 영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영사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영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영사활동 성과 평가 시행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영사활동의 종합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도부터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영사활동 성과평가 제도는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영사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

1) 영사민원 시스템(e-Consul)구축

외교통상부는 전재외공관 전산망과 행정부처 전산망을 연계한 e-Consul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재외공관에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출입국기록, 신원조회, 병적기록, 운전면허등록기록, 주민등록정보 조회 등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2) 재외공관 민원실 운영

외교통상부는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재외공관 민원실에 영사·민원 개선함을 설치하여 불평·불만 사항 및 개선 건의 등을 접수하고 있다.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순회영사활동, 재외동포 모임 활용, 이메일, 재외공관 홈페이지, SNS를 통한 민원 안내 및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영사민원서비스현장」 및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민원업무처리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5. 영사·민원 관련 정보 제공

1) 해외여행 안전정보 홈페이지 개설

외교통상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해외 사건·사고, 해외여행, 영사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별 안전 정보, 안전 뉴스, 여행 경보 공지, 여권 정보, 영사 확인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안전상황에 따라, 89개국(1단계 45개국, 2단계 51개국, 3단계 35개국, 4단계 5개국)에 대해 여행경보단계를 지정하고 있다(2012년 2월 기준).

2) 방송 등을 통한 해외여행 안전정보 홍보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에서의 안전 확보 문제가 중요해졌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송¹⁾, 팸플릿, 포스터, 책자 등으로 안전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28개국이다. 2011년에는 라트비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 사우디아라비아, 불가리아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미국과는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현재 미국 앨라배마주, 페루, 파나마, 피지, 이스라엘, 파라과이 등 많은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¹⁾ KBS 제1라디오 <지구촌 오늘>,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제3절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1. 개관

외교통상부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 핵심도구로서 외교통상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각종 현장 소통 활동, 홍보물 발간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홍보전문지인 The PR지 선정 스마트 정부부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소통 강화

외교통상부는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을 활용해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외교부 SNS 계정(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튜브) 운영을 전담하는 ‘뉴미디어팀’을 대변인실 내에 신설하여 수요자 친화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고, SNS로 제기되는 민원에 적시 응대하는 등 SNS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2011년 8월

정부부처 최초로 부내 SNS인 「모팟스토리」를 개통하였다. 모팟스토리는 국내의 본부 및 해외의 재외공관에서 생성되는 모든 홍보콘텐츠를 한군데 모아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선별하여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 전달하고 직원들간에는 이러한 스토리 공유를 통해 부내 소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셜허브 사이트이다.

외교통상부는 부처 대표 SNS 계정 운영에 그치지 않고, 본부 실·국 및 재외공관이 자체 SNS 계정을 운영하며 국민 또는 현지인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소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본부 내 13개 실·국이 24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58개 재외공관이 260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SNS의 확산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외교부의 업무를 보다 잘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1월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을 당시 한·미 FTA 체결의 정부내 최고책임자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네티즌과 직접 트위터 인터뷰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민들이 외교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외교 이슈에 대한 블로그, SNS 퀴즈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소통 현황

매 체	고객수 변화(연초→'12.1월 현재)	증가율	비 고
트위터	팔로워 2,400 → 12,783명	432.6%	실시간 정보 전달 및 신속한 민원 응대 호평
페이스북	팬 1,900 → 9,750명	413.1%	고정 팬층 형성(대학생·청년층)
미투데이	친구 400 → 13,043명	3,128.4%	3.7 개설, 3.11 일본대지진 계기 고객수 대폭 증가



| The PR지 선정 스마트 정부부처 대상 수상



| 모팟스토리 메인화면

이와 같은 활동에 힘입어 2011년 외교통상부 SNS 고객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3. 기타 온라인 홍보 활동

외교통상부는 2011년 국/영문 홈페이지 및 재외공관(국·영·현지어) 홈페이지 등 총 330여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다. 그 이전 2007년 개편 이래 제기되어온 다양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결과, 2011년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국민들이 외교 정보를 보다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홈페이지 콘텐츠와 SNS를 연동시켰으며, 검색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사용자의 홈페이지 콘텐츠 활용과 확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홈페이지 내 정책토론 메뉴가 비활성화 되었음을 감안,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 토론방을 신설하여 국민들은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담당자들이 이를 정책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그 이외에도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 블로그 '외교나래'와 블로그 기자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정책고객들에게 정책메일과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요약 자료보다는 원문 자료



1 개편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책메일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외교통상부는 외교부 청사 견학 프로그램, 지방 중·고교 방문 강연 등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Public Outreach)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2~3회에 걸쳐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내에 외교관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외교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자문대사들과 본부의 실무직원들이 일선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하는 지방 중·고교 방문 프로그램도 널리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특히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2010년 방문수에 비해 2배 증가한 총 138개 학교에 방문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또한 외교 업무를 국민들에게 쉽고 흥미 있게 전달하고자 홍보 동영상과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5. 기획홍보(신속대응팀)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신속대응팀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병행한 기획 홍보를 집중 실시하였다. 그 결과 네티즌들의 상당한 호응과 더불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도 긍정 보도되는 등 인지도와 위상이 상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1년말 실시한 외교통상부 정책 홍보 여론조사에서도 신속대응팀을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기획홍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신속대응팀

»» 2011년 외교통상부 온·오프라인 매체 현황

구 분	매체(수단)	주요 활동
온라인 매체	SNS	· 국영문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mofatkr, /mofatkr) · 국문 미투데이, 유튜브 운영 - 신속한 정보전달 및 다양한 기획콘텐츠 게재 - 각종 민원 응대 등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실시
	블로그	· 주요 외교 행사, 국제이슈, 세계 각국 문화 등에 대해 글,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 쉽게 설명 · 외교통상부 직원 및 대학생 기자단 공동 참여 · 월평균 방문자수 57,000여명
	홈페이지	· 국영문 홈페이지 전면 개편(2011.11) · 모바일 사이트 개편(2012.3)
	뉴스레터/정책메일	· 뉴스레터 34회, 정책메일 37회 발송
	온라인 이벤트	· 온라인 퀴즈 이벤트 12회 개최
대국민 직접	외교부 견학	· 초·중·고등학생 대상 총 33회 실시(2,301명 참석)
접촉 활동	중·고교 방문 강연	· 총 138개 학교 방문
홍보물 제작	홍보 리플릿/ 동영상 제작	· 외교통상부 홍보리플릿 제작(2011.5)
		· 홍보 동영상 제작(2011.6)
		· 신속대응팀 동영상 제작(2011.6)